

2019 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인문교양: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형」시리즈 강좌(2)

주제:미토 도쿠가와(水戸徳川) 가문의 문화교육사업-동아시아 문명 발전의 중심

제 2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에서 쉬싱칭(徐興慶) 총장은 특별히 일본의 도쿠가와 박물관 소장인 도쿠가와 유키(徳川眞木)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 강연을 개최하였다. 쉬싱칭(徐興慶) 총장은 개막식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적 향연일 뿐만 아니라 아주 힘들게 만들어진 자리로서 관중석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두 가지 배경 지식을 우선 설명하셨다. 첫째, 도쿠가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역사는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부터 근대 일본으로까지 이어지며, 관장님께서 언급한 자료처럼 그 역사는 메이지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막부시대 제 15 대말 도쿠가와 요시노부 쇼군(將軍)과 연관이 있다. 둘째, 미토 도쿠가와(水戸徳川) 가문은 고산계(御三家)라고도 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은 서기 1600 년에 세키가라하 대전투(關原之戰)에서 천하를 얻는다. 그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열한 번째 아들인 도쿠가와 요리후사 (徳川頼房)을 미토(水戸)에 분봉(分封)하고, 열 번째 아들은 와카야마 키이(和歌山紀伊)에 분봉하였고, 아홉 번째 아들은 나고야(名古屋尾張)에 분봉하였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합쳐서「고산계(御三家), 도쿠가와 삼대

집안)」이라고도 한다. 지금 도쿠가와 관장이 소개하는 미토 집안(水戸家)은 오늘날 15 대손까지 이어져 현재에도 귀족의 후손들이다. 이번에 문화대학교에서 강의하신 도쿠가와 관장은 15 대「증가집(當主)」의 부인이며, 300 여 년의 역사와 삼만여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도쿠가와 박물관(徳川博物館)의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총장님께서 간략히 소개하자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세미나 내용을 듣기 시작했다.

도쿠가와 관장님은 우선 17~19 세기 에도막부(江戸幕府) 시대의 도쿠가와 집안의 이야기부터 소개하셨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동경에서 시작한다. 1603 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1543~1616)의 에도막부(江戸幕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동경은 원래 황량한 늪지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삼대손인 미토 고몬(水戸黃門)이라고 불리는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의 시기가 되면서 마침내 중국과 조선왕조가 찬양하는 문화의 도시인 동경을 건립하게 되었다. 관장님은 「미토 도쿠가와(水戸徳川) 가문의 문화교육사업-동아시아 문화발전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미토 도쿠가와 초기에 집행한 문화교육정책이 어떻게 단기간내에 동경지역을 평화롭고 민중문화의 소양을 갖춘 수준의 사회로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설명하셨다.

문화교육정책을 검토할때 관장님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초기에 수용하였던 유학(儒學)은, 중국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문헌을 통해 학습한 유학(儒學)임을 강조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아들인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賴房,1603~1661)는 신도(神道) 철학을 배웠으며 동시에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에게서 유학을 배웠다. 도쿠가와 요리후사는 정치는 종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어 불안정한 정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賴房)은 유학(儒學)에 근거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祭祖)를 근본으로 삼았으며 임종 전에 직접 자신의 묘지와
제례의식을 정하셨다.

그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삼대손인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
1628~ 1700)은 영주시기(藩主時期)를 거치면서 에도(江戸,현 東京지역) 일대에
백여 년만에 벼를 심어 수확을 성공하였고 서민들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업기구를 정비하였다.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는 도시기능을
정비한 후에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제 3대부터 제 5대 쇼군시기에 많은
법률제도를 제정하였고 서민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출판정책을
시행하였다. 도쿠가와 미쓰쿠니는 어진 정치를 시행하여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였으며 사서편집처를 설립하여《大日本史》을 편집하였다. 그러나 도쿠가와
미쓰쿠니는 후손이 없어 미토 도쿠가와(水戸德川) 집안이 이 편집사업을
계승하여 1906 년 249 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여 402 권의 방대한
거작인《大日本史》을 완성하였다.

세미나 중간에 도쿠가와 관장은 도쿠가와 박물관(德川博物館)을 소개하는 짧은
만화영상을 소개하셨다. 만화영상의 내용은 하나의 유물이라는 것은 역사, 국학,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섯 가지 중요한 연구 가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문헌조사와 유적조사의 성과도 박물관에 새로운 전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쿠가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념은 창왕고래(彰往考來:彰明往事、考察未來;과거를 분명히 밝혀 장래의 득실을 살피다)이며 이 네 글자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인용한 것으로 만약 과거에 발생한 일을 모른다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미토 도쿠가와 박물관은 유일하게 미토 도쿠가와 가문의 풍부한 문화 소양을 참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며 소장된 유물들은 고도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말하는 것이며 국내외에서도 그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미토 도쿠가와 박물관과 참고자료실은 연구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소장품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장민자(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